

W_F_710

모기로 환생한 계모

2019년 8월 14일, 서귀포시 대천동(용흥동) 오해생 씨 댁, 류진옥 조사.

오해생(여, 1947년생, 서귀포시 용흥동)

- 서귀포시 동홍동 출생으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용흥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남선비에게 큰부인과 작은부인이 있었는데, 작은부인이 큰부인을 꾀어 물가로 가 등을 밀어준다고 하면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 후 작은부인은 병든 척하여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점괘를 받아낸다. 일곱 아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으나 막내아들이 눈치채고, 작은부인은 변소에 목 매달아 죽어 모기가 되었다.

[조사자]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줍서.

[제보자] 남선비 얘긴가 아들 일곱 성제 헌 거, 옛날에 남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 게난 그 사람은 남선비는 큰마누라 있고 작은마누라 잇엇는지 큰마누라하고 작은마누라는 이제 사이가 좋질 안허지 물론.

그니까 어디 마누라 둘이가 지금 시대민 여행인가 어디 갔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젠 낫가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작은마누라가 꼬셨어. 꼬시난 큰마누라는 같이 목욕허겐 헹 등을 서로 밀어 주기로 하고 형님 등 밀어주肯 헹 작은마누라가 하니까 경허렌 헹 등을 미는디 작은마누라가 등 미는 체허멍 물에 빠뜨려 불었어. 큰마누라를.

빠뜨려 부니까 집에 왕 자기는 큰마누라 행세를 헌 거야. 영감한티 남선비한티 속여갖고. 아멩 헤도 옛날이지만 어수룩헌 거 같애 남편이. 옷을 갈아 입고 큰마누라 행세하니까 큰마누라로 알고 작은마누라 어디 갓이넨 허난. 작은마누라는 어쨌다가 어디 강 안 왔젠. 걱행 큰마누라 말 듣고 사는디.

아들 일곱 성제가 있었어. 걱행 같이 사는디 큰마누라가 난 아들 일곱 성제 같이 사는디 작은마누라가 꿰를 썼어. 어쩜 저 아들들을 없앨 궁리를 헌 거여.

그 당시는 앓아 누워네 딱 헹 남편한티 어느 제 넘어가면 점쟁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뭘 쌩 마대나 뭘 쌩 와사 망태기 알아? 망태 쌩 앗앗이난 그 점쟁이한티 점정 오렌 행 남편은 그 말 듣고 가당 보민 작은마누라는 큰마누라 행세하멍 빨리 샛길로 강 쌩 앗아그네 어디 감넨 영감.

우리 마누라 영 아픈디 나을 도리가 잇이넨, 살려야 할 건디, 허난 그땐 그 작은마누라가 자기가 뭐 생각한 대로 말하지. 이레저레 하다가 아들 일곱 성제 이산 넘고 저 산 넘고 행 가당 보면 맷돼지가 일곱 마리 있는데 그 맷돼지를 애행 먹여야 마누라 산덴 허난. 아 이제 경혜그네 다시 집에 왕 경허난 집에 왕마누라한테 일렀어. 이만 저만 행 점쟁이한테 물으니까 어디 가당 보민, 아니아니, 그건 내중에 말.

아들 일곱 성제 애를 내 먹어야 큰마누라 좋넨. 경허난 마누라는 어디 그럴 수가 잇이넨. 자기가 난 아들 어떻 애 내어 먹넨. 어디 강 보민 또 점쟁이가 부르난 그대로 말했어. 재 넘어 강 아곡아곡 남편을 속영 네 번 강 말혜그네 세 번 째 가난 같은 말로 허난 할 수 엇이 애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을 걸로 헤그네.

아들 일곱 성제 모아다 놓고 이만 저만 행 너네 어머니가 아팟인디 애엔 헌건 물론 간일테지. 간을 내엉 먹어야 뻥 좋덴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중에서 제일 막내가 똑똑한 거 닮아.

어머니 병만 낫게 한다면 우리 아들 일곱 성제야 죽고 다시 나민 얘기가 잇지 않넨. 걱정 말렌 우리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그네 형님들 애 내엉 자기는 맨나중에 죽으肯.

울멍 울멍 산에 오르당 보난 맷돼지가 산에 일곱 마리 있었어. 아. 울멍울멍 값이난 어떤 할머니가 느네 일곱 성제 무사 경 울멍 값이니. 이만 저만 행 우리 어머니가 막 아팡 중병이 들었는데 어디 강 점을 치니까 우리 아들 일곱 성제 간을 내 먹어야 병이 낫넨 행 울멍 값우다 허난. 아이고 이 설운 얘기야 울지 말라. 산 올라 가민 맷돼지 일곱 마리 잇이난 잡아당 어머니한티 멱이렌. 애를 냉 왔어.

내엉 왕 족은아들, 어머님 이만저만 행 형님들 애 내엉 왓이난 어머님 이거 먹어그네 만수무강협센 허난, 아이고 기넨 허멍 아이고 니네들 애 내어 먹어그네

이 어멍 살양 무신거 헐 거니. 말로는 경허멍 족은아들은 문풍지를 손으로 찍엉 구멍으로 봇지. 보난 먹는추룩 허멍 초석드레 비와분 거라. 족은아들은 막 똑똑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니란 걸 눈치챘어. 경허난 형님들 들어옵서, 이년 거짓 말행 우리 애 내어 먹으렌 행 죽이겐 행 형님들은 오줌 머렵다 똥 모렵다 행 이 어멍이 옛날에 두딜팡에 강 목 매젠 헷인가 하여튼 목 맷어. 목 매엉 죽으난 그 게 모기가 되고 파리가 됐어. 그게 전설이 그렇게 내려왓젠.

- 핵심어: 남선비, 일곱 성제(일곱 형제), 애(간), 두딜팡(부춘돌), 모기, 멧돼지, 점쟁이, 큰마 누라(큰부인), 작은마누라(작은부인), 족은아들(작은아들)